

동성제약, 골다공증 치료제 공동개발

동성제약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과 실크 단백질을 이용한 골다공증 적용 소재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맺었다고 7월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동성제약은 뼈를 부수는 과골세포의 분화를 막는 실크 아미노산 조성물을 활용해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치료제 연구개발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7/07/18>